

#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합동단속

중구,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수사협의체 구성 새빛시장 ‘짜퐁’ 단속

루이비통·샤넬·구찌등 위조품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 또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난 2월 모여 만든 조직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부경찰서(서장 이용욱)로 구성됐다.

새빛시장은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짜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펼쳐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기관이 개별적으로 새빛시장 위조상품을 단속해왔다. 다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중구 등 4개 수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합동단속 실시, 수사 결과를 노점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

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 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

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12곳에서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노승환 기자〉

■특별기고 / 이정미 중구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도입 시급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담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입법 발의해 심사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과 법률전문가(변호사17명)와 수사경력자(8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주가시세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부여(2019.7.출법)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돼 있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기에 증거 확보, 재산은닉 방지 조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보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간병비, 필수 의료 지원 등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도록 소중하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은 과잉·불법 진료로 인해 건강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안건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차단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재정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

## 장기정차 호객 택시 밤샘 주차 버스 단속

중구, 4월 한 달간 명동·남산·동대문 일대 법규 위반차량

서울 중구가 4월 한 달간 명동, 남산, 동대문 일대의 장기정차 택시, 밤샘 주차 버스 등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속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해 밤 밤 쏟아져나오는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긴 택시 행렬로 인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

구는 남산 케이블카 주변과 명동 일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주변에서 표식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장기정차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를 집중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남산 백범광장에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0:00~04:00, 1시간 이상 주차) 하는 전세버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3월 한 달간 구는 정류장 장기 주차로 인한 정류장 질서문란 3건, 표시등 위반 7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법규위반 행위 총 60건을 단속했다. 107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는 택시·버스·화물조합에도 법규위반 근절 협조를 요청하고 장기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환 기자〉

##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시스템 시범 도입

훈련원공원 옆 노상주차장… 성과분석 내년 확대여부 결정

서울 중구가 오는 4월 17일부터 7월까지 훈련원공원 옆(을지로39길) 노상 공영주차장 8면에 ‘스마트 무인 주차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스마트 무인 주차시스템’은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로 주차 차량을 자동 인식해 임·출차 내역을 관리하는 주차 서비스다.

주차관리자가 열악한 길 위의 환경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다. 그간 노상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터라 이번 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민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3월 한 달간 시공 작업을 통해 주차면마다 차량 제어장치를 설치했다. 차량 진입 시 바닥에서 올라와 임·출차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용자가 차를 빼기 전 무인 정산 기계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면 바닥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내려가 차량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BOO)를 받아 진행됐다.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운영현황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까지 전체 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당 기자〉

##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청과 해빙기 안전점검

12개 시설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위한 합동점검 실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유관기관인 중구청과 함께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총 12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과 더불어 공단의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중구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전사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길성 중구청장과 구청 관련부서의 팀·과장도 함께 참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



중구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이 김길성 중구청과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고, 재산 위험이 큰 시설(안전등급 D)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 리할 방침이다.

〈문당 기자〉

# 불나면 대피 먼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불이 나면 먼저 신속하게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1. 불길과 연기를 보면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 2.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하기!
- 3.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